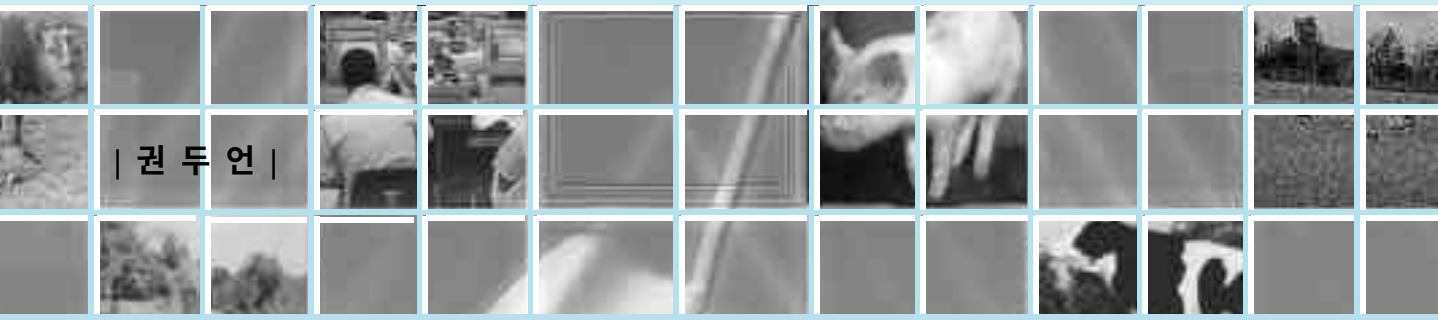

축산발전기금의 통폐합 절대 안된다

수입확대 · 질병발생 · 안전축산물 생산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전용기금의 운용이 더욱 절실한 때

정 일 영
한국사료협회 회장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배경

1970년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소득의 증가로 인해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의 부업축산에서 규모화 · 현대화 된 전업축산으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의 형태를 전업축산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소규모 부업농가를 전업 축산농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개선 및 양축시설의 확장과 전업화된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자급자족적 부업축산에서 전업화된 상업축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농가경영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된데다 축산물 유통량 증가로 유통시설 현대화, 위생수준 향상 등이 필요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육규모 증가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사료의 안정적 확보문제, 축산분뇨의 효과적 처리문제, 사육밀도 증가와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그 피해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등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축산업관련 전용기금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축산업 구조개선 · 생산기반조성, 수급조절및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4년 축산발전기금을 설치 · 운용하게 되었다.

기금의 주요재원 및현황

축산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은 한국마사회납입금, 축산물 인수부가금, 사료가격안정적립금, 수입축산물판매수익납입금, 정부보조금과 개인 및 단체의 출연금, 도입육우 판매차익금 등 축산관련 산업으로부터 조성되었다.

지난 2003년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 규모는 5조3천8백33억원이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규모는 2조5천6백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재원별 조성을 보면 수입축산물판매이익금이 2조6천6백88억원으로 가장 크고 기금운용수익금 1조4천8백79억원, 마사회 납입금 7천9백2억원 등으로 되어 있다. 2001년 이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라 수입축산물판매이익금에 의한 재원은 미미해졌으나 재원별 조성내용을 볼 때 현재 운용중인 축산발전기금의 조성은 정부의 축산물 수입개방화 정책시행으로 인한 축산농민의 피해를 담보로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기금은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1조8백7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축개량으로 6천4백36억원, 사육기반확충 분야에 4천8백22억원이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업 생산액중 축산업비중 27%로 제고시키는 성과

가장 큰 성과는 축산업의 전업화 · 규모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과거 소규모 부업농 위주의 축산업에서 전업농 · 기업농 위주의 전문화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전업농가수가 한(육)우의 경우 50두 이상 사육농가가 1975년에는 82호에서 2만두가 사육되었으나 2003년에는 무려 5천40호에서 49만두가 사육되는 정도로 규모화 됐으며, 돼지 역시 1천두 이상 사육농가가 1975년에는 42호에서 12만4천두 사육되었으나 2003년에는 2천9백28호에서 6백70만6천두가 사육되는 등 축산규모가 전 · 기업화 되었다.

더욱이 생산과 공급을 일괄하는 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우리 축산업의 구조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고, 가축개량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는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전업화가 뚜렷한 것에 비춰볼 때 지속적 축산경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두수와 생산확대로 안정적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 농가소득 증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7년 돼지고기 · 닭고기 · 쇠고기시장개방, IMF 외환위기, 2000년 이후 구제역, 돈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등 연속되는 축산업계의 위기발생시 기금사용을 통해 가축수매, 긴급 경영안정 자금지원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을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근년에 들어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확산방지와 질병 조기진압 등 우리의 방역조치가 OIE(국제수역사무국)와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전문기구 등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같이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었던 점도 축산발전기금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축 · 가공 · 판매 등 축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및 운영활성화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제 도입, 도축장 HACCP 도입,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으로 유통의 S/W를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품질위주의 생산 ·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총소득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9.0%에서 1980년 10.6%, 1990년 15.2%, 2003년 13.8%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액 중 축

산물의 비중 역시 1970년 15.0%에서 1980년 19.1%, 1990년 22.1%, 2003년 22.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에는 농림업 생산액 33조4천억원 중 축산업 생산액이 91천억원으로 약 27%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축산발전기금이 축산업의생산성향상에기여한성과는괄목할만한것이다.

축산발전기금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인한 국제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정책은 지속적이고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는 축산업의 구조개선, 생산성 향상,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등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적인 개선요구 증가로 투자수요가 더욱 커짐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축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구제역,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은 향후 우리 축산업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며, 경종농업과의 순환형 농업체계구축을 위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축산업은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축산으로 거듭 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우량브랜드 중점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사육에서 최종소비까지 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사전예방중심의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과 생산자 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경영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제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항목인 것이다. 특히 마사회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등 축산부문에서 조성된 재원을 축산발전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성과 사용간의 연계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거니와 축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할 때 가축질병발생, 수급 및 가격불안정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금의 존치가 필수적인 것이다.

더욱이 가축질병, 재해 등 돌발적 환경변화로 인한 축산물수급 및 가격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고, 조성재원의 대부분이 축산관련사업으로부터 조성됨에 따라 축산사업으로 지출되는 유기적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축산발전기금의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방화정책 시행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아온 축산농민들의 고난과 땀으로 조성한 축산발전기금은 당연히 축산관련산업의 전용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농업생산액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수년간의 산업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을 매년 신장시켜 왔음에 비춰볼 때 농업경제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축산업의 경쟁력제고 정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축산발전기금 존치의 당위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